

## 이슈

2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030호

내가 왜 떴게?

공룡보다 지드래곤



GD와 양현석 아들

●양현석 아들, 지드래곤 : “녀석, 볼 줄 아네”.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SNS에 아들 사진을 공개했다. 아들 양승현 군이 익살스런 표정의 지드래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My Friend with his one & only favorite singer GD”라는 글과 함께였다. 글로 보아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가수’는 GD인 모양이다. 어린 친구가 눈이 높네. 또래 친구들은 다들 공룡 좋아하는데, 무려 지드래곤이야?

방부제로도 부족해



한예슬

●한예슬, 이상형 :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스페셜 MC로 출연한 한예슬이 이상형을 밝혔다. 예전에는 순정만화 주인공처럼 마르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좋았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건강미 넘치는 스타일이 좋아졌단다. 이 말에 고무된 김중국 어머니는 “중국어한테 전화해야겠다”며 미소를 짓기도. 누리꾼들의 댓글은 ‘한예슬 방부제 미모’로 뜨끈뜨끈하다. 사실 방부제로도 부족하다. 이젠 뭐, 급속냉동 시킨 외모라고 해야.

부부야? 오누이야?



장윤정과 도경완

●도경완, 장윤정 : 도경완, 장윤정 부부의 오뎅한 데이트 모습이 사진 한 장에 담겼다. 도경완 아나운서는 인스타그램에 “얼마만이에요 누낭~ 맥주에서 꽃맛이 나요”라는 꿀 떨어지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의 사진을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데이트보다 진짜 오누이처럼 닮은 외모에 꽃혔다. 자세히 보니 눈썹, 눈매, 코와 볼까지 완전히 빼닮았다. 누군가 이랬다. “도경완이 돌이야...”,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 제91회 아카데미상식 | 올해의 키워드는 다양성·사랑



제91회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별들. 피터 패럴리 감독은 흑인 피아니스트와 이민자 운전기사의 여정을 담은 ‘그린 북’으로 작품상을 차지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실제 연인이 된 루시 보인턴과 라미 말렉이 남우주연상 발표 직후 키스하고 있다. 여우주연상 올리비아 콜맨은 유쾌한 영국식 유머로 객석에 웃음을 안겼다. (왼쪽부터) LA | AP·뉴스

## 최고 영화 ‘그린 북’…다관왕 ‘보헤미안 랩소디’

〈작품상〉

〈4관왕〉



올해 아카데미의 선택은 ‘그린 북’이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여해 흑인 차별 등 인종문제를 향한 아카데미의 견고한 저항을 또 다시 드러냈다.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진행됐다. 올해 시상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양성’과 ‘사랑’이다.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는 영화들이 주요 부문상을 휩쓸었다.

### ●실화 바탕 흑인 이야기…‘그린 북’ 작품상

‘그린 북’은 8편의 후보 경합 끝에 작품상을 차지했다. 다양성과 자유에 대한 아카데미의 의지를 대변한다. 아카데미가 선호하는 실화 영화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이민자인 운전기사가 흑인 피아니스트의 투어에 동행하는 이야기인 ‘그린 북’은 노예제도의 흔적이 남은 1960년대 미국 남부에서 뿌리 깊은 인종차별 속에 두 사람이 우정을 쌓아가는 여정을 유쾌하게 담은 수작이다. 피터 패럴리 감독은 “사랑에 관한 영화”라며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흑인 배우 및 감독, 흑인의 정체성을 담은

그린 북의 수상, 전세계에 사랑의 메시지 프레디 머큐리역 라미 말렉 남우주연상 함께 출연한 연인 보인턴과 감격의 키스 감독상 수상한 쿠아론도 시상식의 주연

작품이 잇달아 수상한 점도 눈에 띈다. ‘그린 북’에서 피아니스트 돈 셸리를 맡은 마허살라 알리는 2년 전 다양성을 이야기해 작품상을 받은 ‘문라이트’에 이어 또 한 번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실패하더라도 항상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흑인영웅을 다룬 첫 히어로무비 ‘블랙 팬서’는 의상상, 미술상, 음악상 등 3개 부문을 차지했다.

### ●‘보헤미안 랩소디’ 4관왕

올해 최다 부문 수상작은 록밴드 퀸과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인 ‘보헤미안 랩소디’다. 남우주연상과 편집상, 음향효과상, 음향편집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다. 프레디 머큐리 역의 라미 말렉은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상에 이어 예상대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의 주인공이 됐다. 수상자로 호명되자 그는 영화에 함께 출연한 실제 연인 루시 보인턴과 키스를 나누고 무대에 올라

“저는 이집트 이민 가정의 아들”이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퀸은 이번 시상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됐다.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는 팝스타 애덤 램버트와 함께 무대에 올라 ‘위 아 더 챔피언’과 ‘위 윌 록 유’를 부르며 30년 만에 사회자 없이 진행된 시상식의 막을 열었다.

### ●‘로마’ 넷플릭스 영화로 첫 감독상

멕시코 출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진짜 주인공’으로 평가받는다. 연출과 각본, 촬영, 편집을 도맡은 비영어(스페인어) 흑백영화 ‘로마’로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영화상을 휩쓸었다. ‘로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작품. 아카데미가 넷플릭스 영화에 감독상을 안기는 처음이다.

2014년 ‘그래비티’에 이어 감독상을 다시 수상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전 세계 7000만 근로자 중 한 명이자 역사적으로 영화의 배경에서 밀려난 캐릭터를 다룬 영화”라며 “예술가로서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일”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 멕시코시티 로마 지역을 배경으

로 감독이 유년기를 담은 자전적인 영화는 어머니처럼 자신을 돌본 가정부를 주인공 삼아 당대 여성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담담하게 그렸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색상을 받은 ‘블랙클랜스맨’의 스파이크 리 감독은 “2020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힘을 모아 역사의 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외쳤다. 시상자로 나온 배우 에이미 폴러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비판하면서 “국경을 세우는 데 절대 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외 주요 수상자(작)는 다음과 같다.

▲여우주연상=올리비아 콜맨(더 페이버릿:여왕의 여자)

▲여우조연상=레지나 킹(이프 빌 스트리트 쿠드 토크)

▲각본상=‘그린 북’

▲주제가상=‘스타 이즈 본’

▲시각효과상=‘퍼스트맨’

▲분장상=‘바이스’

▲장편애니메이션상=‘스파이더맨:뉴 유니버스’

▲장편다큐멘터리상=‘프리 솔로’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교체 거부한 케파…항명에 들끓는 축구종가

〈첼시 GK〉

여기는 영국

카라바오컵 결승전 연장전 후반 케파 교체거부에 사리 감독 분노 BBC “이런건 본 적도 없는 수치”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2018~2019 잉글리시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날 양 팀은 120분 연장혈투까지 득점하지 못했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한 맨시티가 2년 연속 리그 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우승자’ 맨시티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연장전 후반에 논란의 장면을 연출한 첼시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졌다. 첼시 골키퍼 케파 아라사발라가의 항명이었다.

마우루시우 사리 감독은 승부차기를 고려, 연장후반 말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케파의 교체를 준비했다. 이에 후보 골키퍼 월



케파

리 카바예로가 몸을 풀며 터치라인에 섰다. 첼시의 팀 매니저로부터 벤치 의사를 전달받은 부심도 교체할 알리는 케파의 번호를 들었다. 승부차기 대비와 교체사

인.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런데 끝이 문제의 장면이 벌어졌다. 케파는 교체 지시를 거부하는 듯한 손짓을 하면서 그라운드에 남았다. 사리 감독은 볼펜을 집어던지고 라커룸으로 향하는 모션을 취하며 크게 분노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다. 첼시는 두 차례 실축을 했고, 케파는 한 차례 방어에 성공했으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크리스 서튼은 공영방송 BBC에서 케파의 행동을 크게 비난했다. “수치(disgrace)다. 이런 걸 본 적 없다. 케파는 첼시 유니폼을 입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토트넘 출신 저메인 제나스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선배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는 “케파는 무례했고, 패배 후 바로 퇴장한 사리 감독도 품격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당사자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사리 감독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내가 상황을 오해했다. 팀 닥터가 벤치로 돌아온 뒤 알았다. 케파는 부상으로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고 그는 ‘몸에 이상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 많은 취재진이 케파를 기다렸지만 구단 채널

과의 인터뷰에만 응했다. 케파는 “오해였다. 2~3분간 혼돈이 있었지만 팀 닥터가 벤치로 돌아가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케파는 SNS 계정을 통해 “후회한다. 감독 결정과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 난 감독 권위를 무조건 존중한다”고 했으나 최근 첼시 선수단의 항명설과 태업논란 루머와 겹쳐 첼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